

# 크리스찬의 축복 (1)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누가복음 6:20-23 [흠정역]

20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21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22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 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 1. 고난과 핍박은 축복의 선행 조건인가?

예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데에는 위의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울고, 미움 받고, 왕따 당하고, 욕을 받고, 사회적으로 배척 당하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부정적이고 당하기에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보다는 크리스찬이 당하는 고난에 더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빈곤과 배고픔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손실을 당하여 울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까? 우리의 친구들과 친족들로부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능멸 당해도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적 배척과 미움과 차별 대우를 기꺼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부정적 경험들을 당해야 합니까? 크리스찬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 분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경험이 모두 동일하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임하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부정적 경험들을 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축복의 약속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첫번째 질문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축복을 받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행 조건인가?*” 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가난해야만 한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유한 크리스찬들이 신실하게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과 유지를 위하여 투자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그 왕국의 주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가난함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굶주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그런 성품을 가져야만 합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갈급함이 없다면 잘못된 신앙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크리스찬은 사회와 학교, 교회 등 공동 사회에 악의 세력이 확산되면서 선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무력화 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선하고 의로운 가슴과 심령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차지할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력을 느끼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싫어합니다. 우선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을 보십시오. 두개의 나무 조각이 서로 엇갈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나무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다른 나무는 나의 인간성과 세상의 풍조/ 가치관,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으로 구성된 합성목입니다. 이 두가지는 서로 엇갈려서 결코 나아가는 방향이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과 공동생활을 하는 데에는 화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협하고 양보하고, 잠깐 눈감아 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 나의 생활, 나의 가정, 나의 가치관에 세상과 사탄이 영향력이 밀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이를 거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내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남에게 보이고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내는 일로서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번영 복음’이라는 거짓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짓 전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다른 복음 [another gospel]’을 전합니다. 참 복음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하지만 다른 복음은 십자가 없는 축복만 전파합니다. 참 축복은 여러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감으로써 주 예수님의 고난과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런 특권을 전파하지만, 다른 복음은 희생과 핍박과 진리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배제하고 쉽고 즐겁기만한, 축복만 강조하는 빈강정 거짓 약속만 전파합니다. 가짜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전파하고 단지 인간성에 솔깃한 메시지를 팔면서 이런 거짓 행위로 자신들을 치부합니다. 그것은 사기꾼 약장수의 술법이고 소위 야바우 복음인 것을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2. 축복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두번째 질문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입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신앙인들을 대하여 비판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단지 복 받으려고 교회 나가는 것이지 진정한 생활의 변환을 위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간혹 이중적 생활을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못한 잘못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여서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연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였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만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말할 수 없는 훌륭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니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그 분의 명령에 순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이 사악함으로 가득했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대홍수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그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자신들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동물들의 생명을 홍수로부터 보호 받았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에게는 이 땅에 편만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사명을 주셨고, 축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노아의 소명과 축복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향과 친족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셨고 이에 순종하면 커다란 축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창세기 12:1-3]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아직도 성취중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오늘날 유대 민족이 되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모든 혼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가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 3.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가 고난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세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견뎌야 하는 고난과 핍박을 당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의 의문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 선수는 메달을 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이유는 올림픽 메달이 체육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히 평가되는 최고 가치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올림픽 금메달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게 될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했던 행위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가 만족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왕국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축복은 모든 참된 크리스찬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축복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년 왕국에서 왕중의 왕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지만, 그 특권은 모든 크리스찬의 몫은 아닙니다. 그 크기의 대소에 막론하고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의 가치와 훌륭함을 우리가 지금은 온전히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9]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이해력과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훌륭함을 상상하기 힘들지만 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미리 보고 묘사한 것으로서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서 빈곤이나, 질병이나, 외로움이나, 부당한 처우나, 슬픔을 당하신다면 주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그 약속하신 축복의 가치와 보상의 엄청난 크기를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은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가짜 종교의 전통에 따르거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인생이 잠깐 즐기는 값싼 보상에 전혀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의 편으로 온전히 넘어가지 않는한 이 약속하신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논의한 세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짓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약속하신 축복의 선행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 종료되고, 심지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받게 될 축복들의 확실한 보장과 그와 수반되는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메달을 위해 훈련하는 선수에게 고통과 힘든 훈련이 필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은 우리 인생이 종료된 후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축복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29-30]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 배나 받되 꺾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위의 말씀은 복음 전파를 위해 희생을 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국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세상에서 영생과 아울러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고국의 성도들을 통하여 물질적, 영적 도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도움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쓴 마음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는 세상에서 받을 큰 상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섬겨야 당연한 것입니다.

[제2편에 계속]